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6. 25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농업관측팀장	김동현	☎ 760-727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'25년산 주요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, 공급 확대로 가격 약세

- 농업디지털센터, 4품목(월동무·당근·양배추·브로콜리) 작황관측 결과 발표 -
- 재배면적 확대 및 후기 생육 회복으로 출하 집중 영향 받아 가격 하락 -

-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주요 월동채소의 생육부터 생산, 유통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관측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.
-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25~2026년산 주요 월동채소 작황 관측 조사 결과, 품목별 작황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.
 - 농업디지털센터는 지난해 월동무와 당근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작황 관측 조사를 올해 양배추와 브로콜리까지 확대해 총 4개 품목에 대한 생육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.
 -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업인, 농협, 유통업체, 종자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모니터단을 통해 실시됐다. 파종과 정식기부터 수확,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쳐 생육 단계별 현장 조사와 전화 모니터링을 병행해 품목별 작황 변화를 지속 관측했다.
- 관측 결과 2025~2026년산 주요 월동채소는 파종 및 정식기 고

온과 집중 호우, 생육 초기 가뭄 등의 영향으로 초기 생육은 다소 부진했으나 2월 이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생육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월동무, 당근, 양배추는 전년도 가격 강세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와 후기 생육 회복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, 브로콜리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.

* '25~26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면적 : 월동무 5,585ha (전년 대비 20.7% ↑), 당근 1,850ha (25.3% ↑), 양배추 2,040ha (25.5% ↑), 브로콜리 1,009ha (15.0% ↓)

○ 품목별 추정 생산량은 월동무 39만 6,800톤으로 전년 대비 45% 증가했고 당근 6만 670톤으로 42% 증가, 양배추 9만 6,100톤으로 30% 증가, 브로콜리 1만 6,000톤으로 7% 감소했다.

□ 다만 주요 품목은 생육 후기 급격한 비대와 생리장해 발생으로 품위가 다소 저하됐으며, 출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2월에서 4월 사이에 출하 물량이 집중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.

○ 월동무와 당근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치며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며, 양배추는 제주와 전남 지역 동시 출하로 인해 물량이 증가하여 가격 약세가 이어졌다.

○ 반면 브로콜리는 출하 초기 충남 지역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 가격 강세를 보였으나, 이후 제주산 출하 확대에 따라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.

○ 품목별 평균 도매가격은 월동무 1만 3,343원(20kg 기준, 전년 대비 50% ↓), 당근 2만 5,125원(20kg 기준, 59% ↓), 양배추 5,821원(8kg 기준, 54% ↓), 브로콜리 3만 8,421원(8kg 기준, 10% ↑)으로 조사됐다.

- 국내 생산량 증가로 시장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입 수요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. 수입량은 월동무 576톤(전년 대비 97%↓), 당근 4만 867톤(26%↓), 양배추 4,755톤(84%↓), 브로콜리 6,224톤(2%↓)으로 나타났다.
- 한편 2026~2027년산 재배 의향 조사 결과 최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 영향으로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.
- 다만 월동채소 재배 시기에 대체 가능한 작목이 제한적이어서 재배면적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.
- 김태우 제주도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2025년산 관측 품목을 양배추와 브로콜리까지 확대해 주요 월동채소의 생육부터 생산, 유통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”며 “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밀한 관측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들의 합리적인 영농 의사 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- 농업디지털센터는 2026년산부터 마늘과 양파를 추가해 총 6개 주요 월동채소에 대한 전주기 관측 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.